

교과서 속

# 영화 감상 하기

VOL.2



# 서양화



1.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식 판 에이크 ————— 5
2. 비너스의 탄생 보티첼리 ————— 7
3.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 ————— 9
4. 눈 속의 사냥꾼 브뤼헬 ————— 11
5. 여름 아르침볼도 ————— 13
6. 궁정의 시녀들 벨라스케스 ————— 15
7. 자화상 렘브란트 ————— 17
8.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페르메이르 ————— 19
9. 만종 밀레 ————— 21
10. 피리 부는 소년 마네 ————— 23
11.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 세잔 ————— 25
12. 양산을 쓴 여인 모네 ————— 27
13. 피아노 치는 소녀들 르누아르 ————— 29
14. 잠자는 집시 여인 루소 —————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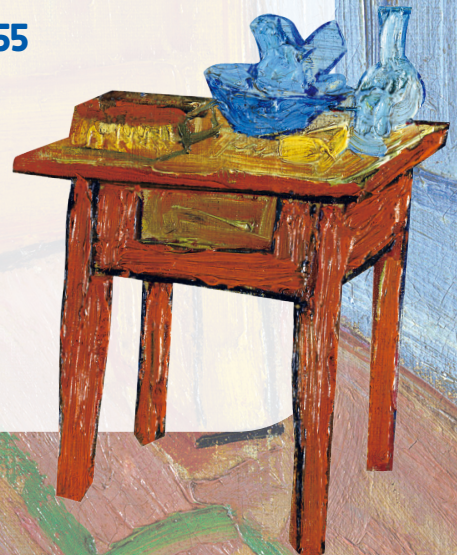


- 15. 반 고흐의 방 반 고흐 ————— 33
- 16. 씨 뿌리는 사람 반 고흐 ————— 35
- 17. 키스 클림트 ————— 37
- 18. 이카루스 마티스 ————— 39
- 19. 아비뇰의 처녀들 피카소 ————— 41
- 20. 나와 마을 사갈 ————— 43

## 동양화



- 21. 자화상 윤두서 ————— 45
- 22. 씨름 김홍도 ————— 47
- 23. 야묘도추 김득신 ————— 49
- 24. 단오풍정 신윤복 ————— 51
- 25. 쌍치도 장승업 ————— 53
- 26. 도원 이종섭 ————— 55





# 1.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식 (판 에이크)



# 1.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식 (판 에이크)

작가 국적	네덜란드	작가 생몰년	1390? ~1441
작품 재료	목판에 유화	작품 크기	60×82.2cm
제작 연도	1434년 작	작가 원어명	Van Eyck, Jan

##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식(목판에 유화/60×82.2cm/1434년 작)

이 작품은 북유럽 르네상스 미술의 거장 판 에이크가 실내에 있는 아르놀피니와 그의 아내를 그린 초상화이다. 당시 신랑은 이탈리아 상인이었고 신부 역시 상인 집안의 딸이다.

이 그림은 원래 제목이 없어 ‘아르놀피니의 결혼’,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식’, ‘아르놀피니와 그의 아내의 초상’ 등 다양한 제목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제목이 붙은 이유는 이 그림이 1434년 브루게스에서 결혼한 아르놀피니와 그의 아내의 결혼 증명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결혼식 사진 같은 것이다. 또한 신랑 신부 주변의 소품들을 보면, 종교적 의미의 결혼 상징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은 서양 미술사에서 여러 가지 상징을 나타낸 가장 독창적이고 복잡한 그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작품 속에 나타난 신랑 신부의 차분한 표정은 판 에이크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형적인 요소이다.

그림 속에는 1434년과 판 에이크라는 날짜와 서명이 표시되어 있으며, 템페라(아교나 달걀노른자로 안료를 녹여 만든 불투명한 물감으로 그린 그림) 대신 유화 물감을 쓴 그림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현재, 1842년 런던 국립 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다.

- 출처: 위키백과

## 판 에이크(동생) (van Eyck, Jan/네덜란드/1390? ~1441)

플랑드르(네덜란드)에서 태어났으며, 화가인 후베르트 판 에이크의 동생이다. 15세기 북유럽 화가 중에서 두드러진 인물이다. 판 에이크는 유화 기법을 사용한 최초의 미술가이기도 하다. 자연에 대한 세심한 관찰, 정교한 세부 묘사로 종교화와 초상화를 많이 그렸다. 대표작으로 <어린 양에 대한 경배>,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식> 등이 있다.

## 2. 비너스의 탄생 (보티첼리)



## 2. 비너스의 탄생 (보티첼리)

작가 국적	이탈리아	작가 생몰년	1445? ~ 1510
작품 재료	캔버스에 템페라	작품 크기	172 x 278cm
제작 연도	1485년 작	작가 원어명	Botticelli, Sandro

### 비너스의 탄생(캔버스에 템페라/172x278cm/1485년 작)

이 작품은 로마 신화에서 사랑과 미를 관장하는 여신 비너스(아프로디테)가 성숙한 여성의 모습으로 바다에서 탄생하여 해안에 상륙하는 내용을 그린 그림이다.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화가인 산드로 보티첼리의 대표적인 그림 가운데 하나로, 이탈리아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

그림을 보면, 비너스는 물 위에 떠 있는 조각비에서 나온 채로 바람의 신 제피로스와 그의 아내 클로리스가 불어주는 바람을 타고 해안에 상륙하고 있으며, 오른쪽 계절의 여신 호라이가 발가벗은 비너스에게 화려한 꽃무늬 옷을 입혀 주고 있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라파엘로와 같은 르네상스 화가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엄격한 고전적 사실주

의와 차이를 두고 있다. 비너스의 몸은 비현실적으로 길고 왼쪽 어깨의 기울기는 해부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각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작품의 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화려한 색채와 세밀한 묘사로 미의 상징인 비너스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여, 고전 미술에서 최고 의 누드화로 손꼽히고 있다. - 출처: 위키백과

### 보티첼리(Botticelli, Sandro/이탈리아/1445? ~ 1510)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으며,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이다. 그는 메디치 가에 고용되어 수많은 초상화를 그렸다. 1482년에는 로마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를 그렸다. 대표작으로 〈비너스의 탄생〉, 〈프리마베라〉 등 있으며, 〈비너스의 탄생〉은 사실적 기법에서 벗어나, 상징과 장식을 강조하여 시적 세계를 이룩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 3.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



### 3.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가 국적	이탈리아	작가 생몰년	1452~1519
작품 재료	회벽에 유채와 템페라	작품 크기	460×880cm
제작 연도	1495~1497년 작	작가 원어명	Leonardo da Vinci

#### 최후의 만찬(회벽에 유채와 템페라/460×880cm/1495~97년 작)

이 작품은 밀라노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 교회에 있는 벽화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주의 만찬’으로 알려져 있다. 기독교의 신약성서에 쓰여진 장면 가운데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가 수난을 당하기 전날 밤, 열두 제자들과 함께 가진 저녁 식사 장면을 그린 것이다.

이 작품은 인물들의 어수선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질서정연한 구도를 보이고 있다. 그 구도는 정 중앙에 위치한 예수를 기준으로 하여, 오른쪽에 6명, 왼쪽에 6명을 배치하고 그들은 또한 3명씩 짝을 이루고 있는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그림의 정리된 듯한 느낌은 이런 규칙성뿐 아니라 중앙에 있는 예수를 중심으로 퍼진 원근법적 구도 덕분이다.

또한, 이 그림은 윤곽선을 주지 않고 밝기와 어둠으로 표현하는

명암법과 색깔 사이 경계선을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없도록 부드럽게 옮겨가게 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테마로 보는 서양미술)

#### 레오나르도 다빈치 (Leonardo da Vinci/이탈리아/1452~1519)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태어났으며, 15~16세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예술가이다. 대표작으로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이 있으며,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와 함께 르네상스의 3대 거장으로 불린다.

15세 때부터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의 제자가 되어 회화, 조각 등 여러 분야에서 훈련을 받았다. 밀라노 대공의 후원으로 17년간 밀라노에 머무르면서 <최후의 만찬> 등의 대작을 그렸다. 회화, 건축, 기계, 해부학 등에서 방대한 업적을 남겼다.

## 4. 눈 속의 사냥꾼 (브리힐)



## 4. 눈 속의 사냥꾼 (브뤼헬)

작가 국적	네덜란드	작가 생몰년	1525~1569
작품 재료	목판에 유화	작품 크기	117 x 162cm
제작 연도	1564년 작	작가 원어명	Brueghel, Pieter (the Elder)

### 눈 속의 사냥꾼(목판에 유화/117 x 162cm/1564년 작)

이 작품은 달력을 만들기 위해 그린 여섯 작품 중 하나이다. 현재는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북유럽 르네상스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브뤼헬은 1564년경이 되면서 자연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작품은 계절에 맞는 자연의 모습과 인간의 일하는 모습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달력의 1월이나 2월을 장식하기 위해 그린 것으로 추측된다.

이 작품을 보면, 사냥꾼들은 지친 개의 무리와 함께 아랫마을로 돌아가고 있으며, 한 남자의 어깨에는 여우 한 마리가 매달려 있다. 왼쪽의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있고, 아랫마을의 얼어 붙은 강에는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사람들의 모습을 한 사람 한 사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서 대자연에 순응

하며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화가의 따뜻한 면모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 그림이 높이 평가되는 것은 세부적 모습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도와 효과이다. 원편에는 사냥꾼, 오른편에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대자연의 모습이 조화롭게 펼쳐져 있다.

유럽에서 브뤼헬 이전에는 눈 내리는 풍경의 그림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겨울 풍경 1호가 이 작품인 것이다. - 출처: 위키백과

### 브뤼헬(부) (Brueghel, Pieter (the Elder) /네덜란드/1525~1569)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으며, 16세기 후반 네덜란드 최대의 풍속화가이다. 그의 초기 작품은 주로 민간 전설, 속담 등을 주제로 그렸으나, 후에는 사회 불인과 혼란에 대한 격렬한 분노 등을 종교적 세계를 벗어나서 표현하게 되었다. 대표작으로 <바벨탑>, <네덜란드의 속담>, <농민의 결혼식>, <아이들의 놀이> 등이 있다.

## 5. 여름 (아르침볼도)



## 5. 여름 (아르침볼도)

작가 국적	이탈리아	작가 생몰년	1527~1593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화	작품 크기	76×64cm
제작 연도	1573년 작	작가 원어명	Arcimboldo, Giuseppe

### 여름(캔버스에 유화/76×64cm/1573년 작)

아르침볼도는 다른 화가들과 달리 식물, 채소, 과일, 꽃과 같은 자연물, 다양한 사물 등을 그림의 소재로 사용하였다. 인물화가 또는 정물 초상화가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사람의 모습을 그렸다.

이 작품은 4계절 중 여름을 주제로 하였으며, 사계 연작 중 가장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여름의 청년은 강렬한 햇살 아래 각종 과일과 작물로 뒤덮여 있다.

코는 오이, 눈은 버찌, 눈썹은 밀이삭, 입과 이빨은 강남콩, 입술은 체리, 귀는 마늘, 볼은 복숭아, 턱은 배, 머리카락은 포도·옥수수·호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복도 밀이삭과 짚단으로 표현하였고, 가슴에는 아티초코 한 송이가 자라고 있다. 어깨에는 제작 연도가 새겨져 있고, 목에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목에 있는 이름 뒤의 F는 라틴어 fecit의 약자로서 ‘작자’라는 뜻이다.

인물화이자 정물화인 아르침볼도의 작품은 당대 굉장한 파격이었으며 후에 피카소, 마그리트 등 초현실주의에도 영향을 주었다.

- 출처: 플러시아트콜렉션



봄



가을

### 아르침볼도(Arcimboldo, Giuseppe/이탈리아/1527~1593)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으며, 16세기 이탈리아 매너리즘 시기의 화가이다. 1562년 체코의 프라하로 가서 페르디난트 1세·막시밀리안 2세·루돌프 2세의 3대를 섬기는 궁정화가로 1582년까지 머물렀다. 약 20점의 유화와 많은 소묘를 남겼는데, 동물과 식물을 아울러 사람의 머리를 형용한 괴기한 작품으로 유명하다. 대표작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채소를 기르는 사람> 등이 있다. - 출처: 두산백과



겨울

## 6. 궁정의 시녀들 (벨라스케스)



## 6. 궁정의 시녀들 (벨라스케스)

작가 국적	에스파냐(스페인)	작가 생몰년	1599~1660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화	작품 크기	318×276cm
제작 연도	1656년 작	작가 원어명	Velázquez, Diego

### 궁정의 시녀들(캔버스에 유화/318×276cm/1656년 작)

이 작품은 스페인 예술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거장 벨라스케스가 1656년에 완성한 작품이다. <궁정의 시녀들>은 어느 것이 실재하는 것이고 어느 것이 환상인지에 대한 복잡하고 수수께끼 같은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보는 사람과 보여지는 사물 사이의 관계를 불확실하게 만든다. 이러한 복잡함으로 인해, 가장 많이 연구된 서양화 작품 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은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의 마드리드 궁전에 있는 큰 방을 그린 것이며, 스페인 왕실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을 마치 사진을 찍은 것처럼 정확히 포착하고 있다. 몇몇 인물들은 캔버스 밖을 바라보고 있는 반면, 다른 몇몇 인물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어린 마르가리타 왕녀를 시녀들과 호위병, 그리고 난장이, 커다란 몸집의 개 한 마리가 에워싸고 있다.

그들 바로 뒤에, 벨라스케스 자신이 큰 캔버스에 작업 중인 모습이 그려져 있다. 벨라스케스는 작품 내부의 공간을 넘어 이 그림을 감상할 누군가가 자리할 캔버스 밖 저편을 바라보고 있다. 배경에는 거울이 걸려 있으며, 거울 속에는 왕과 왕비의 상반신이 보인다.

이 작품은 오랫동안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들 중의 하나로 손꼽혀 왔다.

- 출처: 위키백과

### 벨라스케스(Velázquez, Diego/에스파냐/1599~1660)

스페인에서 태어났으며, 바로크 시대 펠리페 4세 궁정을 주도하던 화가로, 초상화에 유능한 화가이다. 그는 다수의 스페인 왕족들의 초상화를 그렸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을 그렸다. 그 작품의 절정은 그의 걸작 중의 걸작인 <궁정의 시녀들>이다. 19세기의 초반 동안 벨라스케스의 작품은 다른 모든 인상주의 화가들과 사실주의 화가들의 귀감이 되었으며, 마네 또한 그들 중 한 명이다. 대표작으로 <브레다 성의 행복>, <비너스의 단장> 등이 있다.

- 출처: 위키백과

## 7. 자화상 (렘브란트)



## 7. 자화상 (렘브란트)

작가 국적	네덜란드	작가 생몰년	1606~1669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화	작품 크기	84×66cm
제작 연도	1659년 작	작가 원어명	Rembrandt, Harmensz van Rijn

### 자화상(캔버스에 유화/84×66cm/1659년 작)

이 작품은 렘브란트가 50대에 그린 자화상이다. 사람들이 렘브란트가 낯설지 않은 이유는 수없이 많은 그의 자화상 때문일 것이다.

초기에 그는 표정 연습을 위한 자화상, 판매를 위한 자화상들을 그리다가, 말년에는 오로지 화가로서의 자신을 탐색하듯 응시하는 자화상만을 그렸다.

부와 명예를 누렸던 렘브란트는 규모 없는 생활로 1656년에 파산을 한다. 집과 작품, 수집품들을 처분해야 했고, 자기 그림을 맘대로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던 말년의 십여 년 동안 렘브란트는 정면을 향하고 있는 자화상을 집중적으로 그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려진 작품 중의 하나인 1659년의 자화상에서는 아무런 과장 없이, 얼굴과 눈빛만으로 위엄을 전달하는 화가의 모습이 화면 밖으로 살아 나올 듯 생생하게 그려졌다.

바로크의 대표적인 화가인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자신의 얼굴에 내재한 삶의 굴곡을 거침없이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그 위대함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화가의 생애와 예술세계)

###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 van Rijn/네덜란드/1606~1669)

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 화가이다. 빛의 화가라고도 불리는 그는 일반적으로 유럽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이자 판화가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며, 특히 네덜란드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이기도 하다. 예술 분야에서는 그로 인해 네덜란드 황금 시대를 불러오게 하였다. 대표작으로 <자화상>, <야경>, <돌아온 탕자>, <틸프 교수의 해부학 강의> 등이 있다.

- 출처: 위키백과



1632년(26세)



1640년(34세)



1655년(49세)



1660년(54세)

## 8.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페르메이르)



## 8.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페르메이르)

작가 국적	네덜란드	작가 생몰년	1632~1675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화	작품 크기	44.5×39cm
제작 연도	1665년 작	작가 원어명	Vermeer, Jan

###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캔버스에 유화/44.5×39cm/1665년 작)

이 작품은 네덜란드 화가 페르메이르의 걸작으로, 이름에서 암시하듯이 소녀가 걸고 있는 진주 귀걸이에 초점을 맞춰 그린 그림이다. ‘북유럽의 모나리자’ 또는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라고도 불린다.

페르메이르 특유의 미묘한 빛의 표현, 단순하지만 조화로운 구성, 선명한 색채가 특징이다. 빛의 효과를 사용하여 두 번 이상의 붓 터치로 그려진 진주는 왼쪽 윗부분이 밝게 빛나고 있다. 아랫부분은 하얀 옷깃을 반사하여 부드럽고 투명한 느낌을 준다.

그림에서 머리에 터번을 두른 진주 귀걸이의 소녀는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왼쪽 어깨를 틀어 고개를 돌리고 있다. 큰 눈동자와 관능적인 입술, 특유의 시선과 표정이 보는 사람에게 비밀스러운 신비감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페르메이르와 그의 작품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은 거의 없다. 이 그림이 의뢰를 받아서 그려진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누가 의뢰를 했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이 없다. 그러나 이 그림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틀에 박힌 초상화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출처: 위키백과

### 페르메이르 (Vermeer, Jan/네덜란드/1632~1675)

바로크 시대에 활동했던 네덜란드 출신 화가이다. 그는 네덜란드가 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전성기를 누리던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에 활동했던 화가이다.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의 대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주로 실내 풍속화를 많이 그렸다. 대표작으로 <회화의 우의>, <신념의 우의>, <우유를 따르는 여인>, <두 신사와 여인> 등이 있다.

- 출처: 위키백과

## 9. 만종 (밀레)



## 9. 만종 (밀레)

작가 국적	프랑스	작가 생몰년	1814~1875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화	작품 크기	55.5×66cm
제작 연도	1857~1859년 작	작가 원어명	Millet, Jean-François

### 만종 (캔버스에 유화/55.5×66cm/1857~1859년 작)

밀레의 대표작 중 하나인 〈만종〉은 황혼녘에 감자 캐는 일을 끝낸 농부 부부가 감자를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신에게 삼종 기도 (날마다 오전, 정오, 오후에 세 번 중을 칠 때마다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하루 세 번 교회 종소리가 울리면 기도를 했던 당시의 풍습 속에 농부의 고단한 삶과 소박한 농촌 풍경을 경건하게 표현하였다.

1865년 밀레는 “〈만종〉은 옛날에 할머니가 들에서 일하다가도 종이 울리면 일을 멈추고, 죽은 기엣은 이들을 위해 삼종 기도 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다.”라고 말하였다.

틀판에 굳건히 서 있는 작품 속 부부의 모습은 마치 대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며, 먼 지평선에서 물들어가는 황혼 빛을 받고 있

는 부부의 경건한 자세는 종교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 밀레 (Millet, Jean-François/프랑스/1814~1875)

프랑스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농부들의 삶을 관찰하며 자랐다. 그는 농부들의 일상을 그린 작품으로 유명하며, 사실주의 혹은 자연주의 화가라 불리고 있다.

그는 19세기 중엽에 활동한 프랑스 화가의 집단인 바르비종파의 창립자들 중 한 사람이다. 35세가 되는 해 파리를 떠나 한적한 시골인 바르비종으로 이사하여 농사를 짓게 되면서부터 농촌을 배경으로 수많은 명작을 남겼다. 대표작으로 〈이삭줍기〉, 〈만종〉, 〈씨 뿌리는 사람〉 등이 있다.

## 10. 피리 부는 소년 (마네)



## 10. 피리 부는 소년 (마네)

작가 국적	프랑스	작가 생몰년	1832~1883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화	작품 크기	160×97cm
제작 연도	1866년 작	작가 원어명	Manet, Édouard

### 피리 부는 소년(캔버스에 유화/160×97cm/1866년 작)

이 작품은, 마네의 친구인 르조손 사령관이 데려온 페피니에르라는 소년 병사를 그린 것이다. 그는 황제 친위대 곡예단에서 피리를 부는 소년이다.

그림을 보면, 바닥과 벽면의 구분이 어려운 회색 배경 앞에 경찰 모자를 쓰고 붉은색 바지를 입은 작은 키의 소년 병사가 앞을 보며 피리를 불고 있다. 소년은 무표정한 모습으로 앞쪽만 응시하면서 연주하고 있다.

이 그림은 손과 발에 살짝 그려 넣은 그림자를 제외하곤 그림자가 없어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배경을 최대한 단순하게 처리하여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나타내었다. 또한, 검정과 붉은색의 색채 대비로 화면을 구성하여 강렬한 효과를 주었다.

이 그림도 <풀밭 위의 점심>, <올랭피아>처럼 미술 전시회인 살롱에 출품했지만 살롱의 심사 위원들은 인물을 입체적으로 그리지 않고 배경도 없는 그림이라며 거부되어 살롱에 전시되지 못했다.

### 마네 (Manet, Édouard/프랑스/1832~1883)

마네는 인상주의 화가로, 프랑스 파리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19세기 현대적인 삶의 모습에 접근하려 했던 화가 중의 하나로, 시대적 화풍이 사실주의에서 인상주의로 전환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그의 초기작인 <풀밭 위의 점심 식사>와 <올랭피아>는 엄청난 비난을 불러일으켰으나, 반면에 수많은 젊은 화가들을 주변에 불러모으는 힘이 되었다. 이들이 후에 인상주의를 창조하게 되어 마네를 '인상주의의 아버지'로 불렀다. 그의 화풍의 특색은 단순한 선 처리와 강한 필치, 풍부한 색채감에 있다.

11.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 (세잔)



# 11. 사견과 오렌지가 있는 정물 (세잔)

작가 국적	프랑스	작가 생몰년	1839~1906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화	작품 크기	74 x 93cm
제작 연도	1895~1900년 작	작가 원어명	Cézanne, Paul

##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캔버스에 유화/74 x 93cm/1895~1900년 작)

세잔이 말년에 그린 대표적인 정물화로, 쿠션이 있는 긴 의자에 천과 냅킨을 깔고 그 위에 도자기와 과일을 배치한 구도이다. 사과를 담은 접시가 앞으로 떨어질 듯한 느낌이 들지만 불안정하지 않고 오히려 발랄한 생동감이 느껴진다. 사과나 오렌지의 경우에는 붉은 색에서 노란색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가 매우 아름다우며, 형태나 양감이 매우 잘 묘사되어 있다.

세잔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일과 그릇을 소재로 한 정물화를 많이 그렸다. 그는 특히 대상을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는 위치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정물의 대상을 옮기면서 실험을 계속하였고, 이러한 실험을 하면서 몇 가지 소재를 계속 사용했는데, 그 소재

가운데 하나가 사과였다.

이 작품은 세잔이 전통적인 원근법과 명암법을 무시하고 그린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언뜻 보면 무질서하게 나열된 정물들이 서툴게 묘사된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작품 속의 공간과 그 안의 사물들이 전통적 원근법에서 벗어나 있다. - 출처: 두산백과

## 세잔(Cézanne, Paul/프랑스/1839~1906)

프랑스의 화가 세잔은 사람들에게 정물화를 미술 작품으로 인식시켰고, 자연의 모든 형태를 원기동과 구, 원뿔로 해석한 독특한 그림을 그렸다. 이런 특징은 피카소와 브라크 같은 입체파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어 '근대 회화의 아버지'로 불렸다. 대표작으로 <병과 사과 바구니가 있는 정물>, <생트 빅투아르 산> 등이 있다.

## 12. 양산을 든 여인 (모네)



## 12. 양산을 든 여인 (모네)

작가 국적	프랑스	작가 생몰년	1840~1926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화	작품 크기	100×81cm
제작 연도	1875년 작	작가 원어명	Monet, Claude

### 양산을 든 여인(캔버스에 유화/100×81cm/1875년 작)

이 작품은, 파란 하늘이 펼쳐진 바람 부는 날 언덕에 양산 쓴 여인과 아이가 산책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언덕 위의 여인과 아이는 모네의 부인 까미유와 아들 장이다.

모네는 그림 모델과 화가로 카미유를 처음 만나게 된다. 당시 모네는 25살, 카미유는 18살이었다. 모네는 카미유의 아련하고 슬퍼보이는 눈빛에 매료되어 첫눈에 반하게 된다. 그들은 곧 사랑하게 되어 동거를 하게 되었고, 2년만에 아들 장을 얻는다. 이 시절 모네는 물감 살 돈이 없어 그림을 그리지 못할 만큼 가난했지만,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하게 보냈다. 당시 모네의 그림 속에 그려진 모든 여인은 그의 아내인 카미유였다.

이 작품은 따사로운 햇살과 솔솔 불어오는 바람이 느껴지는 그림이다. 모네가 관심을 가진 것은 순간의 포착으로, 빛이 만들어낸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물의 생동감이라는 효과에 주목하였다. 푸르른 언덕 위에 핀 노란 꽃과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춤추는 듯한 구름을 보면 모네가 왜 인상파를 대표하는 화가인지를 느낄 수 있다.

### 모네 (Monet, Claude/프랑스/1840~1926)

인상주의 화가이자 인상파의 개척자인 모네는 ‘빛은 곧 색채’라는 인상주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으며, 대상의 형태를 그리기보다는 빛의 변화에 따른 순간적인 인상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인상파라는 명칭이 그의 작품 〈인상, 해돋이〉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또한 같은 주제를 시간과 날을 달리하여 반복해서 그리며, 많은 연작을 만들었다. 대표작으로 〈인상, 해돋이〉, 〈루앙 대성당〉, 〈수련〉 연작 등이 있다.

### 13. 피아노 치는 소녀들 (르누아르)



## 13. 피아노 치는 소녀들 (르누아르)

작가 국적	프랑스	작가 생몰년	1841~1919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화	작품 크기	116×90cm
제작 연도	1892년 작	작가 원어명	Renoir, Pierre-Auguste

### 피아노 치는 소녀들(캔버스에 유화/116×90cm/1892년 작)

이 작품은, 두 소녀가 다정한 모습으로 피아노 앞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한 소녀는 악보를 한 손으로 넘기면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고, 다른 소녀는 피아노에 팔꿈치를 걸친 채 연주를 듣고 있다. 주변의 화려한 장식과 소녀들의 뽀얀 피부, 단정한 옷차림을 보아 부유한 가정임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은 1892년 초 르누아르가 오랜 고생 끝에 화가로 명성을 얻으면서 처음으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파리에 새로 생긴 뤼상부르그 미술관에 전시할 그림을 요청 받아 완성한 작품이다. 비슷한 모습의 그림을 여러 개 그렸기 때문에 얼핏 보면 같은 그림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르누아르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노란색과 주황색, 그리고 붉은색을 사용하여 밝고 온화하며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표현하였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배경과 커튼, 소녀의 옷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려 따뜻한 색과 조화를 이루었다. - 출처: 천재학습백과

### 르누아르(Renoir, Pierre-Auguste/프랑스/1841~1919)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로, 여성의 육체를 묘사하는 데 특출났으며 풍경화에도 뛰어났다. 인상파 중에서 세잔과 대비되는 화려한 멋을 보여주고 있다. 세잔은 풍경 속에 자연의 정신을 품은 데 비해, 르누아르는 여인을 모습을 그려 화사하고 부드러운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대표작으로 <물랭 드 라 갈레트>, <샤토에서 뱃놀이를 하는 사람들>, <목욕하는 여인들> 등이 있다.

14. 잠자는 짐시 여인 (루소)



## 14. 잠자는 집시 여인 (루소)

작가 국적	프랑스	작가 생몰년	1844~1910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화	작품 크기	129.5×200.7cm
제작 연도	1897년 작	작가 원어명	Rousseau, Henri

### 잠자는 집시 여인(캔버스에 유화/129.5×200.7cm/1897년 작)

이 작품은 근대의 대표적 그림 중 하나로, 단순한 구성과 화려한 색채로 세부를 꼼꼼하게 묘사하였다. 야생 동물 및 이국적인 인물을 통하여 루소는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루소 특유의 '환상'이 등장한다. 고요한 사막의 배경에 걸쳐 잠든 여인과 주변을 맴도는 사자가 등장한다. 지팡이를 쥐고 누운 여자 곁에는 만돌린과 물병이 놓여 있다. 사자가 곁에 와 있어도 깊은 잠에 빠진 여인은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으며, 사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여인을 살펴보고 있다.

루소는 정글이나 사막을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다. 이 그림은 상상으로 그린 것이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름대로 아프리카 정글

과 사막의 풍광을 상상해서 그 상상을 캔버스에 옮겨 놓은 것이다.

### 루소(Rousseau, Henri/프랑스/1844~1910)

루소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며,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는 파리 세관에서 세관원으로 근무하면서 틈틈이 그림을 그렸다. 언제부터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30대 중반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는 화가로서 성공하고 싶어했지만, 그의 그림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말년에 접어들면서 비평가들로부터 차츰 인정을 받게 되었다. 대표작으로 <잠자는 집시 여인>, <자화상>, <뿔주린 사자>, <이국적인 풍경> 등이 있다.

# 15. 반 고흐의 방 (반 고흐)



## 15. 반 고흐의 방 (반 고흐)

작가 국적	네덜란드	작가 생몰년	1853~1890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화	작품 크기	73×91 cm
제작 연도	1889년 작	작가 원어명	van Gogh, Vincent

### 반 고흐의 방(캔버스에 유화/73×91 cm/1889년 작)

파리에서 성공하지 못한 반 고흐는 1888년(35세) 2월 남프랑스 아를로 이사를 한다. 그는 이곳에서 화가 공동체를 설립하고자 ‘노란 집’을 빌렸고, 고갱을 초대한다. 이 작품은 그해 여름 고갱을 기다리며 꾸며 놓은 자신의 방을 그린 것이다.

방 안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커다란 침대가 있고, 침대 위에는 베개가 놓여 있다. 포 주변에는 의자가 있다. 그리고 벽에는 2개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하나는 고흐 자신이며 다른 하나는 여동생 윌의 초상화이다.

반 고흐는 〈반 고흐의 방〉이라는 이름으로 세 작품을 그렸다. 이 작품의 세 가지 버전에서는 문, 창문, 의자, 침대 같은 주요 요소가 모두 동일한 위치에 그려졌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가장 쉽게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오른쪽 벽에 걸린 그

림들로서, 특히 캔버스 프레임 바로 아래에 있는 초상화 두 개와 침대 머리맡 위에 걸린 풍경화에 변화를 주었다. - 출처: 천재미술백과

### 반 고흐 (van Gogh, Vincent/네덜란드/1853~1890)

네덜란드 화가로 일반적으로 서양 미술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이다. 짧고 구불구불한 필체와 강렬한 색채로 독자적인 화풍을 만들었다. 그는 그의 작품 전부를 정신질환을 앓고 자살을 감행하기 전의 10년 동안에 다 만들어냈다.

그는 살아 있는 동안에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사후에 비로소 알려졌는데, 특히 1901년(그가 죽은 지 11년 후) 파리에서 71점의 반 고흐의 그림을 전시한 이후 그의 명성은 급속도로 커졌다. 대표작으로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씨 뿌리는 사람〉, 〈자화상〉 등이 있다. - 출처: 위키백과

16. 씨 뿌리는 사람 (반 고흐)



## 16. 씨 뿌리는 사람 (반 고흐)

작가 국적	네덜란드	작가 생몰년	1853~1890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화	작품 크기	64×80.5cm
제작 연도	1888년 작	작가 원어명	van Gogh, Vincent

### 씨 뿌리는 사람들(캔버스에 유화/64×80.5cm/1888년 작)

이 작품은 고흐가 고갱과의 불화로 귀를 자르고 생레미 정신병원 입원 중에 밀레의 그림을 모사한 것이다. 반 고흐는 화가의 길로 접어들 무렵 많은 선배 화가들의 작품을 모사했지만, 그중에서도 밀레를 가장 존경하고 진정한 스승으로 삼았다.

그림을 보면, 상단 중앙에 태양 빛이 찬란하게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그 아래 작은 집과 황금빛 작물들이 보인다. 그리고 고르게 쟁기를 갈아 있는 들녘에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다.

반 고흐는 자신의 고향 네덜란드와 비슷한 분위기의 프랑스 남부 지방 ‘아를’을 좋아하게 되었다. ‘습지의 마을’이란 뜻을 지닌 이 지역에서 그는 수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쾌청한 날씨와 광활한 평야 위로 작열하는 태양은 그에게 ‘영원함’이었다. 고흐는 이 풍경을 배

경으로 ‘씨 뿌리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 출처: <https://seoul-artist-group.tistory.com/53>

### 반 고흐(van Gogh, Vincent/네덜란드/1853~1890)

네덜란드 화가로 일반적으로 서양 미술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이다. 짧고 구불구불한 필채와 강렬한 색채로 독자적인 화풍을 만들었다. 그는 그의 작품 전부를 정신질환을 앓고 자살을 감행하기 전의 10년 동안에 다 만들어냈다.

그는 살아 있는 동안에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사후에 비로소 알려졌는데, 특히 1901년(그가 죽은 지 11년 후) 파리에서 71점의 반 고흐의 그림을 전시한 이후 그의 명성은 급속도로 커졌다. 대표작으로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자화상> 등이 있다. - 출처: 위키백과

## 17. 키스 (클림트)



## 17. 키 스 (클림트)

작가 국적	오스트리아	작가 생몰년	1862~1918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화	작품 크기	180×178cm
제작 연도	1907~1908년 작	작가 원어명	Klimt, Gustav

### 키스(캔버스에 유화/180×178cm/1907~1908년 작)

〈키스〉는 클림트의 그림 중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그의 황금 시기에 그린 후기 작품이다. 남녀가 황금빛 옷과 장식에 둘러싸여 입맞춤을 하는 모습을 그렸다.

그림을 보면, 한 남자가 여자를 기이한 자세로 꼭 안고 볼에 입맞춤을 하고 있다. 여자는 무릎을 꿇고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다.

두 사람을 둘러싼 황금빛 천에는 여러 가지 무늬로 가득 차 있다. 남자의 옷에는 사각형 무늬가 그려져 있고, 여자의 옷에는 실루엣을 따라 원형 무늬가 그려져 있다. 남자의 몸은 화려한 장식에 묻혀 거의 보이지 않고, 여자는 얼굴과 손, 발만 보인다. 배경은 황금빛과 초록빛 위에 화사한 꽃더미로 꾸며져 있다.

클림트를 상징주의 화가로 부르는 것은 다양하고 장식적인 금박 문양과 복잡한 기하학적 패턴을 사용해 에로티시즘의 극치를 몽환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 클림트(Klimt, Gustav/오스트리아/1862~1918)

오스트리아의 화가 중 가장 유명하며, 여성의 관능미와 남녀 간의 사랑 감정을 예술적으로 극대화한 상징주의 화가이자 빈 분리파 운동의 한 사람이다. 1897년, 당시의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예술 성향에 반기를 들고 전위적 예술을 꿈꾼 진보적인 ‘빈 분리파’를 결성하며 빈 전위 미술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1905년경 ‘빈 분리파’를 탈퇴하면서 독자적인 작업 활동에 매달렸다. 매혹적인 여성의 관능미와 신비로운 에로티시즘의 〈키스〉를 완성하였다. 황금빛 바탕과 기하학적 패턴이 특징인 독창적인 양식을 발전시켰다. 클림트는 회화, 벽화, 스케치 등의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대표작으로 〈키스〉,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 부인〉, 〈베토벤 프리즈〉 등이 있다.

18. 이카루스 (마티스)



## 18. 이카루스 (마티스)

작가 국적	프랑스	작가 생몰년	1869~1954
작품 기법	콜라주	작품 크기	43.4×34.1cm
제작 연도	1946년 작	작가 원어명	Matisse, Henri

### 이카루스(콜라주/43.4×34.1cm/1946년 작)

마티스는 1941년 그의 나이 72세 때 암 수술을 받은 후,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마티스는 좌절하지 않고 ‘종이 오리기’를 통해 미술 작업을 계속하였다. 말년에 색종이를 이용해서 만든 작품집 《재즈》를 출간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카루스〉이다.

이카루스는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태양 가까이 높이 날다가 밀랍이 녹아 바다에 떨어져 죽은 그리스 신화 속 인물이다. 하늘 높이 올라가자 말라는 아버지의 경고를 잊은 채 과욕을 부렸고, 결국 바다로 떨어져 죽게 된 것이다.

마티스는 이카루스가 태양 가까이 날다 비행의 꿈이 좌절된 채, 파랗고 노란 별들이 있는 하늘에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파란 하늘, 검은 형상, 노란 별빛, 붉은 심장 등 단순한 형태와 과감한 색채로 표현했지만 이로 인해 많은 걸 상상하게 한다.

### 마티스(Matisse, Henri/프랑스/1869~1954)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며,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운다. 그는 야수주의의 창시자로 강렬한 색채와 형태의 작품을 선보였는데 그것은 20세기 회화의 일대 혁명이었다. 회화, 조각, ‘종이 오리기’를 이용한 그래픽아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을 남겼다.

오늘날 그의 작품은 세계 각국에 존재하고, 20세기 불후의 명작으로 평가된다.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회화의 주도적 인물이 되었다. 대표작으로 〈붉은 방〉, 〈목련꽃을 든 오달리스크〉, 〈독서하는 여인〉, 〈모자를 쓴 여인〉, 〈춤II〉, 〈푸른 누드3〉 등이 있다.

## 19. 아버님의 처녀들 (피카소)



## 19. 아비뇰의 처녀들 (피카소)

작가 국적	에스파냐(스페인)	작가 생몰년	1881~1973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화	작품 크기	243.9×233.7cm
제작 연도	1907년 작	작가 원어명	Picasso, Pablo

### 아비뇰의 처녀들(캔버스에 유화/243.9×233.7cm/1907년 작)

〈아비뇰의 처녀들〉은 1907년에 제작한 작품으로, 다섯 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는 바르셀로나 아비뇰 인근 사창가 여성을 그린 것이다. 아비뇰이란 바르셀로나의 서민가에 있는 마도로스 상대의 창녀들이 있는 거리의 명칭이다.

그림을 보면, 구성이 예사롭지 않다. 여성들의 인체, 천, 커튼, 그리고 배경이 원근법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의 면 위에서 뒤섞여 그려졌다. 그림 하단에 놓인 과일 담긴 탁자는 위에서 내려다본 시선을 담고 있어 여성을 보는 각도와 충돌한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묘사된 대상이 전부 입방체로 변환된 것은 아니다. 때로는 19세기 말 유럽 예술계를 강타한 원시 아프리카 미술의 모티프도 뒤섞여 나타난다. 그림 우측의 여인 둘은 서부 아프리카의 원시 가면에서 영향을 받았다고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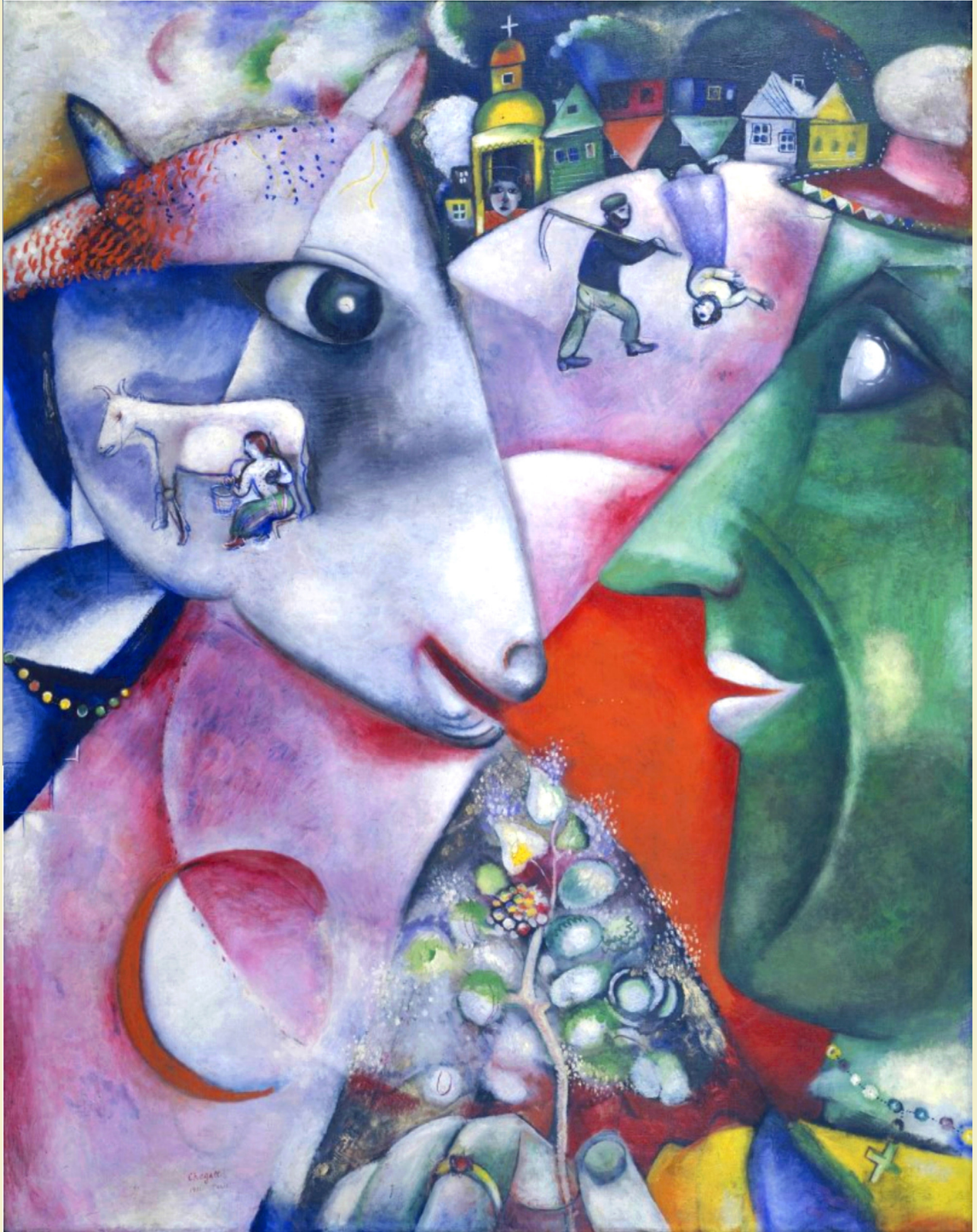
이 작품은 미술사 최초의 입체주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 출처: 위키백과, 네이버 지식백과(The Bridgeman Art Library)

### 피카소(Picasso, Pablo/에스파냐/1881~1973)

스페인 태생이며, 프랑스에서 활동한 입체파 화가이다. 프랑스 미술에 영향을 받아 파리로 이주하였으며 르누아르, 퐁루즈, 뭉크, 고갱, 고흐 등 거장들의 영향을 받았다. 초기 청색시대를 거쳐 입체주의 미술 양식을 창조하였고, 20세기 최고의 거장이 되었다. 대표작으로 〈게르니카〉, 〈우는 여인〉, 〈아비뇰의 처녀들〉 등이 있다. - 출처: 두산백과

## 20. 나와 마을 (샤갈)



## 20. 나와 마을 (샤갈)

작가 국적	러시아→프랑스	작가 생몰년	1887~1985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화	작품 크기	192.1×151.4cm
제작 연도	1911년 작	작가 원어명	Chagall, Marc

### 나와 마을(캔버스에 유화/192.1×151.4cm/1911년 작)

이 작품은, 러시아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샤갈이 파리에서 공부하면서 고향 마을에 대한 추억을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의 주제는 샤갈이 고향에 머물던 시절의 기억과 모습을 말하고 있다. 화면에 그려져 있는 소와 사람의 그윽한 시선으로 보아 샤갈에게 있어서 고향의 마을은 친구나 가족처럼 다정하고 따스한 기억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속에는 흰 염소와 초록색 사람이 서로 시선을 마주하고 있다. 그림 윗부분에는 마을의 집과 교회가 있으며, 몇몇 집들은 거꾸로 공중에 떠 있다. 그 밑으로는 여인과 낫을 들고 있는 농부가 있는데 이들도 역시 집처럼 여인은 거꾸로 된 모습이다. 흰 염소가 그려진 부분에는 흰 염소와 그 염소에게서 젖을 짜고 있는 듯한 여인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그림 중앙에는 원 형태를 볼 수 있는데 그 원 아래 하나의 나무가 자라나고 있다. 붉은색과 초록색 등 대비되는 색감을 사용하였지만, 전체적인 색감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 출처: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명화 1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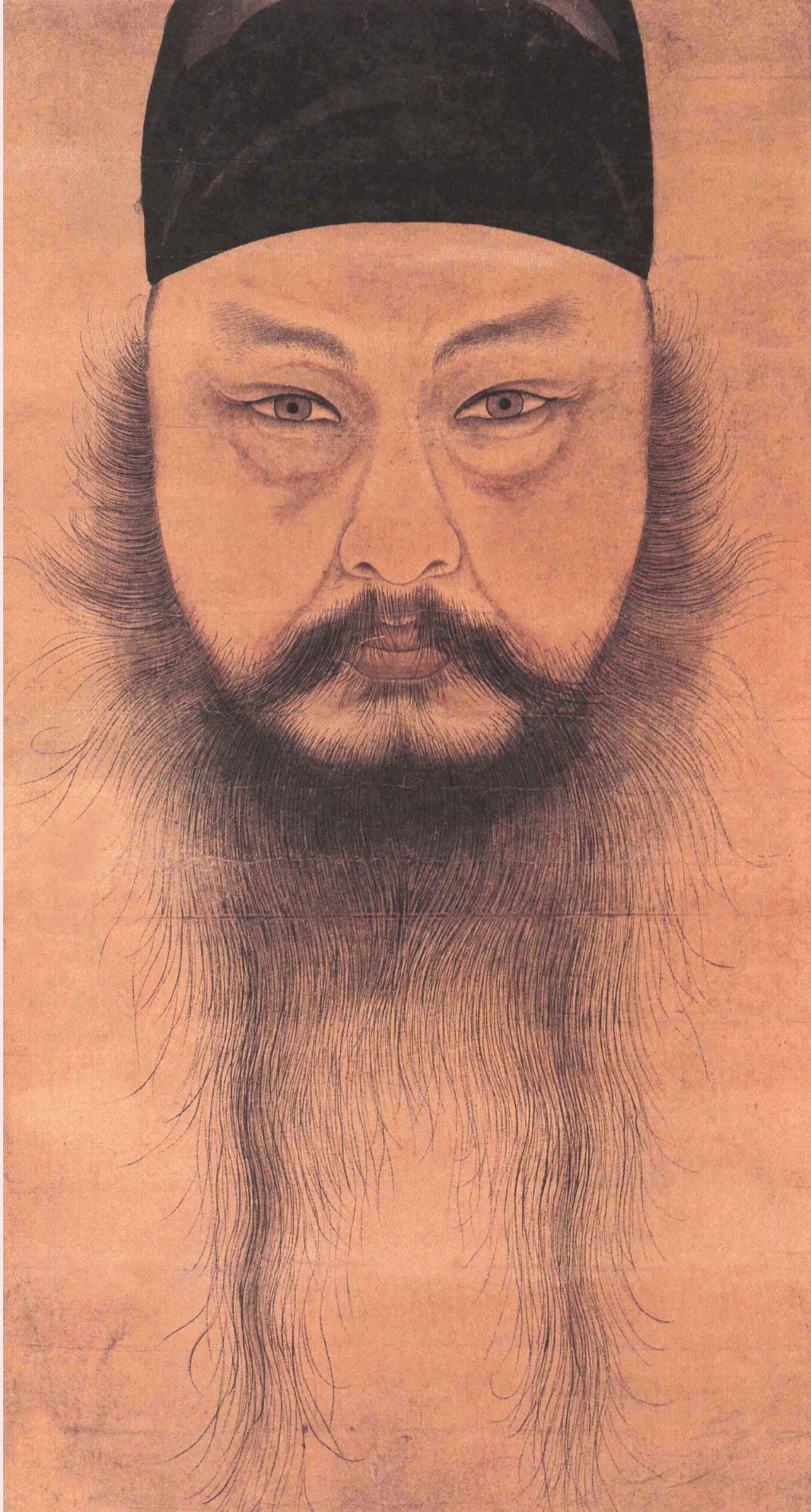
### 샤갈(Chagall, Marc/러시아→프랑스/1887~1985)

러시아 제국(현 벨라루스)에서 태어난 프랑스의 화가이다. 파블로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불린다. 샤갈은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성인이 된 후, 대부분의 시간을 프랑스에서 보냈으나 평생 고국을 그리워했다.

그는 문화적·종교적인 상징과 민속적인 이야기에 애정을 갖고 있어 이러한 것을 그림 주제로 사용하였으며 유화, 판화, 벽화, 조각, 도기 제작을 비롯하여 무대 장식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동을 하였다.

75년 동안 샤갈은 자신만의 그림을 10,000점 넘게 그렸다. 그중 대표작은 <나와 마을>, <산책>, <도시 위에서>, <에펠탑의 신랑 신부> 등이 있다. - 출처: 위키백과

## 21. 자화상 (윤두서)



## 21. 자화상 (윤두서)

작가 국적	한국	작가 생몰년	1668~1715
작품 재료	종이에 채색	작품 크기	38.5×20.5cm
제작 연도	1710년 작	작가 한문명 / 호	尹斗緒 / 공재

### 자화상(종이에 채색/38.5×20.5cm/1710년 작)

이 작품은 윤두서가 자신을 그린 자화상으로, 얼굴뿐 아니라 성격과 인품까지 드러나도록 그린 그림이다.

몸은 생략하고 얼굴만 확대하여 표현한 특이한 형식의 자화상은 전신을 모두 그린 조선 시대 초상화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작품이다. 얼굴에는 그림자를 주어 입체감을 주었는데 특히 표현하기 어려운 코 부분에 볼륨감을 주어 묘사하였다. 코 밑 팔자 수염과 턱수염, 그리고 구레나룻은 울동감을 주어 화면의 운동감을 북돋우고 있다. 또한, 가는 선으로 처리된 수염은 안면을 보다 부각해서 예리하게 응시하듯 그려진 눈동자와 함께 강한 힘과 생기를 느끼게 한다.

거짓 없는 외모와 그의 정신세계를 솔직하게 드러낸 작품으로 동양인의 자화상으로는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윤두서(한국/1668~1715)

조선 후기의 화가로, 윤선도의 증손자이다. 숙종 때(26세) 진사에 급제하였으나, 당쟁이 심하던 시기였기에 출사하지 않았다. 학문에 전념하며 시서화로 생애를 보냈다. 글씨와 그림에 능하였는데, 특히 인물화·동식물도 등의 그림에 뛰어났다.

조선 후기의 화단의 선구자로 지목받으며, 현재 심사정·겸재 정선과 함께 조선의 '3재'라 불린다. 대표작으로 <노승도>, <산수도>, <자화상> 등이 있다. 서화뿐만 아니라 유학, 천문 지리, 수학, 병법 등 각 방면에 능통하였다. - 출처: 위키백과



## 22. 씨름 (김홍도)

작가 국적	한국	작가 생몰년	1745~?
작품 재료	종이에 수묵담채	작품 크기	26.9×22.2cm
제작 연도	조선 시대	작가 한문명 / 호	金弘道 / 단원

### 씨름(종이에 수묵담채/26.9×22.2cm/조선 시대)

이 작품은 조선 시대 서민들의 일상을 나타낸 풍속화로, 씨름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익살스럽게 표현하였다. <씨름>은 김홍도를 대표할 만한 명품 작품이다.

두 무리의 구경꾼들을 화면의 위아래에 등글게 배치하여 가운데 공간을 준 다음, 서로 맞붙어 힘을 겨루는 두 사람의 씨름꾼을 그려 넣어 그림의 중심을 잡았다. 왼쪽에 서 있는 옛 장수는 구경꾼들의 관심 밖에 있으면서도 이 원형 구도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벗어 놓은 신발은 오른쪽으로 터진 여백을 좁히는 구실을 하고 있다.

이처럼 빈틈없이 짜인 구성과 함께 간결한 붓질로 풍부하게 묘사한 인물들의 표정과 열띤 좌중의 분위기가 김홍도의 비범한 재능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인물들이 입고 있는 무명옷의 질감에 맞추어 구사된 투박한 필치와 등글넙적한 얼굴, 등글등글한 눈매도 그가 즐겨 다룬 풍속 인물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다.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김홍도(한국/1745~?)

조선 후기의 화가로, 한국적 풍속화로 조선 시대 4대 화가에 꼽힌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는 그의 호 단원에서 따온 이름이다. 정조 시대 때 문예부흥기의 대표적인 화가이다. 그는 산수화, 풍속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가였지만 인물화 및 신선도, 화조화, 불화 등 모든 분야에서 독창적인 회화를 구축한 화가이기도 하다. 주로 청탁을 받아 그림을 그렸지만, 일반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그린 풍속화가로 더 주목받고 있다. 대표작으로 《단원풍속도첩》, 《행려풍속도》, 《송월도》, 《단원도》, 《마상청앵도》 등이 있다. - 출처: 위키백과

23. 아묘도추 (김득신)



## 23. 야묘도추 (김득신)

작가 국적	한국	작가 생몰년	1754~1822
작품 재료	종이에 수묵담채	작품 크기	22.4×27cm
제작 연도	조선 시대	작가 한문명 / 호	金得臣 / 금재

### 야묘도추(野猫盜雛/종이에 수묵담채/22.4×27cm/조선 시대)

이 작품은 들고양이(야묘)가 병아리(추)를 훔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어느 화창한 봄날 검은 도둑 고양이가 어미 닭과 함께 놀고 있던 병아리 한 마리를 잽싸게 몰고 달아나고 있다. 이를 보고 놀란 어미 닭은 날개를 퍼덕이며 도둑 고양이를 쫓아가고, 다른 병아리들은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다. 캄짝 놀란 주인은 하던 일을 멍게치고 고양이를 향해 장죽을 후려치면서 소리쳤고, 아내는 마루 위에서 동동 걸음을 치고 있다.

고요했던 오후의 정적을 깨뜨리는 봄날의 소동을 사실적이면서 익살스럽게 표현하였다. - 그림 출처: 간송미술관

### 김득신(한국/1754~1822)

김득신은 조선 후기의 화가이다. 도화서 화원 출신으로 인물과 풍속화를 잘 그렸다. 조선 시대의 풍속을 재치 있게 그려 김홍도, 신윤복과 함께 ‘조선시대 3대 풍속화가’로 불린다.

그는 풍속화뿐만 아니라 풍경이나 동물 그림에도 뛰어났다. 김득신은 서민들의 일상생활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김홍도와 다르게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조선 시대의 집과 생활용품 등을 모두 사실적으로 그려 그의 그림을 보면 조선 시대의 생활 모습이 잘 알 수 있다. - 출처: 위키백과

# 24. 단오풍정 (신윤복)



## 24. 단오풍정 (신운복)

작가 국적	한국	작가 생몰년	1758~?
작품 재료	종이에 채색	작품 크기	28.2×35.2cm
제작 연도	조선 시대	작가 한문명 / 호	申潤福 / 혜원

### 단오풍정(端午風情/종이에 채색/28.2×35.2cm/조선 시대)

이 작품은, 단오날 여인(기생)들이 냇가에서 창포물로 머리 감고, 그네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풍경을 그린 것이다.

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음력 5월 5일 단오는 예로부터 설날, 추석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큰 명절이다. 단오날에는 농사일을 잠시 쉬고 모두가 새 옷을 입고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단오날 머리 감고 그네 타는 놀이를 하는 이유는 악귀를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화면 중앙엔 노랑 치고리에 다홍 치마를 입은 여인이 그네에 오르고 있고, 오른쪽 위쪽에는 엄청나게 큰 다리머리를 한 여인이 머리를 만지고 있다. 왼쪽 아래에는 여인들이 목욕을 하고 있고, 위에는

멀리서 목욕하는 여인들을 훑쳐보는 동자승들의 모습이 익살스럽게 그려져 있다. - 그림 출처: 간송미술관

### 신운복(한국/1758?~)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로 김홍도, 김득신과 더불어 조선 시대 3대 풍속화가이다. 양반층의 풍류와 남녀 간의 연애, 기녀와 기방의 세계를 도시적 감각과 해학으로 펼쳐 보였다.

가늘고 유연한 선과 원색의 산뜻하고 또렷한 색채 사용, 현대적인 구도와 독특한 상황 설정으로 조선 시대 풍속화의 영역을 넓혀 주었다. 대표작으로 <미인도>와 《풍속화첩(‘단오풍정’, ‘연당의 여인’, ‘쌍검대부’, ‘선유도’)》 등이 있다. - 출처: 두산백과

## 25. 쌍치도 (장승업)



## 25. 쌍치도 (장승업)

작가 국적	한국	작가 생몰년	1843~1897
작품 재료	종이에 수묵담채	작품 크기	135.5×55.3cm
제작 연도	조선 시대	작가 한문명 / 호	張承業 / 오원

### 쌍치도(종이에 수묵담채/135.5×55.3cm/조선 시대)

이 작품은 두 마리의 꿩을 주제로 그린 그림이다. 바위와 나무를 배경으로, 장끼(수꿩)는 나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까투리(암꿩)는 고개를 뒤로 돌려 바위 사이에 활짝 핀 화초를 바라보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렸다.

이 그림은 <호취도>와 짝을 이루는 작품으로, 거침 없는 필치와 생동감 넘치는 묘사는 장승업의 천부적인 재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화가들 중에 스스로 노력해서 이름을 날린 사람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는 사람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장승업이다. 그는 오직 혼자서 중국의 명화들을 보고 그림을 익혔다고 한다. 그가 붓을 휘두를 때마다 멋들어진 산수가 되고 인물이 되고 동물이 되었다고 한다.

### 장승업(한국/1843~1897)

조선 말기의 화가로, 조선 최고의 천재 화가이다. 누구에게 그림을 제대로 배워 본 적도 없지만, 본 대로 느낀 대로 그리는 그림마다 최고의 걸작을 남겼다.

그는 지인의 추천으로 도화서 화원으로 일했으며, 청나라의 위안스카이, 리홍장은 그의 그림을 얻어가려고 여러 번 청탁을 했다고 한다. 절지화, 산수화, 인물화, 영모화, 사군자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데 뛰어났다.

필치가 호방하고 대담하면서도 소탈한 여운이 감돌아 조선 후기 말엽을 대표하는 화가로서 안견, 김홍도와 함께 '조선 화단의 3대 거장'으로 일컬어진다. 대표작으로 <기명절지도>, <풍림산수도>, <산수영모절지 병풍>, <산수도>, <팔준도>, <매화도> 등이 있다.

- 출처: 위키백과

26. 도원 (이동섭)



## 26. 도원 (이중섭)

작가 국적	한국	작가 생몰년	1916~1956
작품 재료	종이에 유화	작품 크기	65 x 76cm
제작 연도	1953년 작	작가 한문명 / 호	李仲燮 / 대항

### 도원(종이에 유화/65 x 76cm/1953년 작)

이 작품을 보면 과일나무에 복숭아꽃이 활짝 피어 있고, 복숭아도 주렁주렁 열려 있다. 이곳은 그가 힘겨울 때마다 꿈꾸었던 낙원이자, 여기에서는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모두 발가숭이로 원숭이처럼 나뭇가지에 매달려 아무런 걱정 없이 놀고 있다.

북쪽이 고향인 이중섭은 6.25 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와 부산, 동영, 제주도 등지에서 피난 생활을 했다. 그림 재료를 살 돈이 없어서 담뱃갑의 은박지에 그림을 그릴 정도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 결국 생활이 힘들어 부인과 두 아이들을 차가가 있는 일본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항상 가족이 보고 싶었던 그는 바닷가와 아이들을 즐겨 그리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도원〉은 죽은 아이들이 하늘나라에 혼자 갈 것이 걱정되어 길동무 하라고 그려 준 작품이다.

### 이중섭(한국/1916~1956)

한국의 서양화가이다. 박수근과 함께 한국 근대 서양화의 양대 거목으로, 시대의 아픔과 굴곡 많은 생애의 울분을 ‘소’라는 모티프를 통해 분출하였다. 대담하고 거친 선을 나타내면서도 해학과 천진무구한 소년의 정감이 작품 속에 녹아 있다.

대표작으로 〈서귀포의 환상〉, 〈물고기와 노는 세 어린이〉, 〈부부〉, 〈황소〉, 〈길 떠나는 가족〉, 〈도원〉, 〈달과 까마귀〉, 〈흰 소〉 등이 있다. - 출처: 두산백과